

■ 실속 재테크

의료 실비보험

다음달 1일 보험료 인상 지금 가입하면 혜택 두배

다음 달부터 실제 병원비를 보장해주는 의료 실비보험이 보험료는 오르는 반면 보험혜택은 줄어든다. 손해보험사들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4월을 기준으로 예정이율을 조정해 보험 상품의 가격과 내용을 대대적으로 손질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험료는 최대 10% 오르고 보험혜택은 절반가량 줄어들어 드는 상품도 등장할 예정이다. 따라서 의료 실비보험에 가입하려면 이달 내에 서두르는 것이 유리하다.

실제 병원치료비 보장

▷ 보장기간 최대 100세 = 의료 실비보험은 쉽게 말해 환자 본인이 부담한 실제 병원치료비를 보장해 주는 보험이다. 보험사마다 민영의료보험, 의료실비보장보험, 건강보험, 의료비보장보험, 실손보장보험, 실비보험 등으로 부르고 있다.

현재 의료 실비보험의 보장한도는 입원료비 1억원, 통원료비 50만원이다. 보장기간도 최대 100세까지 상품도 있다.

그러나 다음달부터는 혜택이 반토막으로 줄어든다. 우선 입원료비 한도는 3천만·5천만·1억원 중 소비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4월부터는 1억원 한도는

없어진다. 통원 의료비도 하루 10만·30만·50만원 중에서 고를 수 있었지만 이제는 10만·20만원으로 선택폭이 줄어들게 된다.

즉, 하루 50만원 보장한도 상품에 가입해 1일 병원비가 56만5천원이 나왔다면 환자는 6만원(자기 부담금 5천원 공제)만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20만원이 넘는 돈은 환자 본인이 내야 한다. 병원에 지속적으로 매일 통원하면서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에겐 불리해지는 셈이다.

손우철 TNV어드바이저 AD센터장은 "입원료비 한도를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려도 소비자가 더 내야 하는 보험료 부담은 몇백 원 수준"이라며 "향후 물가 상승으로 인해 의료비 지출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입한다면 의료비 한도를 1억원까지 높게 설정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한도 1억 설정 유리

실제로 40세 남성이 질병 입원 의료비 특약(5년 갱신 기준)에 가입할 경우, 3천만원으로 한도를 정하면 월 보험료 부담이 약 7천400원 정도 된다.

하지만 이를 1억원 한도까지 끌어올리면 월 보험료는 7천700원에 달한다. 보장 한도는 두배 이상 늘

어졌는데도 월 보험료 차이는 300원밖에 나지 않는다.

▷ 유의할 점 = 가입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우선 의료 실비보험 특약은 3~5년마다 보험료가 갱신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보험사들은 급작스럽게 의료비 지급이 늘어나는 위험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료를 3~5년마다 조정한다.

3~5년 마다 보험료 조정

따라서 계약 갱신 시점에 가입자의 연령 증가·발병률·의료수가 상승 등이 반영돼 보험료가 인상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치매나 디스크, 신경계 질환 등은 보험사별로 보장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보장 질병 범위에 대해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예를들어 질병 의료실비의 경우, LIG손보·흥국화재 등은 기질성 치매(알츠하이머병 등)에 대해서도 보장해 주지만 삼성화재·현대해상 등은 보상을 주지 않는다.

손우철 AD센터장은 "통상 보험사들은 소비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상품을 개정하지 않는다"며 "상품 개정 전에 가입하면 기존 약관이 만기까지 계속 적용되기 때문에 가입한다면 서두르는 것이 좋다"고 지적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살롬산업, 코스닥 상장한다

전남 농식품가공업체로는 처음 천연스낵·국밥 시리즈 곧 출시

농식품 가공업체인 살롬산업(주)(대표 김정매·사진·나주시 왕곡면 월천리)이 전남지역 농식품 관련업체 가운데 최초로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살롬산업은 전남지역에서 생산되는 대표 농작물을 농산물 동결건조공법(FD)으로 가공한 천연스낵과 즉석죽·국밥시리즈를 조만간 시중에 출시하고, 전주시의 군내까지 추진해 중견기업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17일 살롬산업에 따르면 지난해 말(제)전남테크노파크와 업무협약을 통해 1~2년내 코스닥 상장 및 기술혁신 등에 관한 논의를 마쳤다. 이를 위해 서울 D컨설팅사와 함께 올 상반기 중에 서울과 광주지역에서 대규모 기업투자설명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지난 6일 식품위생법과

관련된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을 받아 식품의 원재료 생산에서부터 제조·가공·보존·조리·유통단계를 거쳐 최종소비자가 도달하기 전까지 안전한 위생관리시스템을 갖췄다. 특히 HACCP 인증직 후 냉동대과 36t(4천만 원 규모)을 일련에 수출해 첨단가공기술을 인정받기도 했다.

김정매 대표는 "지난해부터 즉석누룽지탕을 군내 납품한데 이어 비빔밥 등 전주시장을 납품할 경우 연간 200t의 지역살을 소화할 수 있다"면서 "대형 할인점에 납품될 즉석국밥 등 6종은 후대가 가능해 언제 어디서나 물만 부으면 끼니를 대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살롬산업은 또 배·참다래·무화과·유자 등 전남지역 22개 시·군에서 생



산되는 특산물을 '웰빙스낵'으로 만들어 시중에 출시할 계획이다. 1~2년 전부터 스낵 생산계획을 추진해온 살롬산업은 기업부설연구소, 대학연구소 등과 공동연구 끝에 최근 전체 생산예정인 스낵중 80%에 달하는 제품을 시험개발해낸 상태다. 기존 스낵이 소량의 원재료에다 갖가지 화학성분을 가미해 만든 인스턴트 제품인 반면, 웰빙스낵은 전남지역 농산물 고유의 맛과 색, 영양을 자연 그대로 함유해 어린아이는 물론 성인들도 즐겨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1993년 설립된 살롬산업은 50여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96억원의 매출에 이어 즉석시리즈와 웰빙스낵이 출시되는 올해에는 200억원의 매출이 예상된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주택연금 가입 편 농특세 전액 면제

주택금융공사 광주전남지사는 17일 주택연금 가입자의 담보설정 때 부과하던 농특세를 전액 면제하는 내용의 농특세법 개정안이 18일부터 발효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자는 등록세, 교육세,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금 면제에 이어 농특세까지 면제받게 돼 담보비용 대부분을 내지 않고, 법무사 보수료만 부담하면 주택연금 담보등기를 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74세 가입자가 2억 5천만원짜리 주택으로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담보비용은 현행 84만원에서 29만원으로 65% 가량이 줄어든다.

주택금융공사 장상인 광주전남지사는 "초기 비용부담 때문에 상품 선택을 망설였던 고령층의 주택연금 가입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한국 주택금융공사

임주재 사장 20일 내광

임주재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지역 주택건설업체의 애로사항 청취와 광주은행과의 업무협약을 위해 오는 20일 광주를 방문한다.

임 사장은 이날 오전 광주 라마다 호텔에서 지역 주택건설업체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주택금융지원에 대한 건의 및 애로사항을 듣고 미분양 아파트 적체 해소를 위한 의견을 교환한다.

오후에는 광주은행과 주택금융 업무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을 갖고 아파트 건설현장을 둘러본후 상경할 예정이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재규어' 광주공략 나섰다

재규어 랜드로버 코리아(대표 이동훈)가 17일 광주시 광산구 쌍암동 '런던 모터스'에 광주지역 첫 전시장을 오픈했다. <사진> 전시장은 495.87m(150평) 규모로 동시에

6대의 차량 전시가 가능하며, 차량 50여대를 수용할 수 있는 넓은 주차장도 갖췄다. 런던 모터스는 남구 소하동에 공식 서비스 센터를 열어 고객들의 차량 점검 및 정비 서비스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문의 062-971-8899.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난청이 사라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062) 227-9940
총점: (062) 227-9970

조이 여행사
234-3222

상해 항주 소주 4일 (M/J)
285,000

북경 3박 4일 (OZ)
389,000

북경 4박 5일 (OZ)
419,000

제주 2박 3일 패키지 여행
88,000

3월 13, 14, 19, 24

선박+항공 138,000

코이브레보통 이용에 수반
고객여러분께 드리는 감사 세일!!

82리 한정 특가 선착순 40명

카멜리아 3박 4일 - 부산출도착
179,000

279,000

388,000